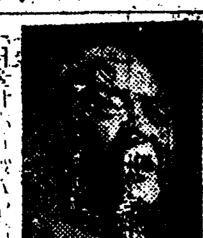
朝鮮日報

THE CHOSUN ILBO 檀紀四千二百八十二年八月二十八日 (日曜日) (日刊) 第八千八十八號 (一)

發行所 서울市太平路一街 朝鮮日報社

퀴리노氏對太盟態度에 李大統領,疑問을表明

鎭海聲明에 回答遲延도 難解



【서울廿八日發AP合同】李承晩大韓民國大統領은 廿六日 記者團과 會見한 席上 엘피노·퀴리노氏는 太平洋同盟에 關하여 언제 行動을 取할것인가 라고 疑問을 表明하였다 [illegible]

티토ー의 現情

蘇聯抗拒歸趨注目

【뉴욕廿七日發AP合同】[illegible]

主權引渡를 拒否

毛澤東氏에 影響

商工振興方案

大統領이 特別敎示

[illegible]

五個分委開會

圓卓會議本格化

【和蘭 헤이그廿七日發AP合同】[illegible]

韓中比等極東諸國에

二億餘弗新軍援提案

【워싱톤二十七日發UP】[illegible]

上院外軍委서 討議

對外軍援案

社說

美國의 新極東策에 期待

[illegible]

駐獨美高等辦務官 맥氏歸美

非公式美日同盟

美對日政策에 英誌評

[illegible]

上程議案은 七十一件

「리ー」國聯總長九月總會를 樂觀

[illegible]

北大條約發效에 事前措置三個事項

[illegible]

民强總會推進

不參團體와 協調企圖

民强不加入

韓靑서 聲明發表

西藏은 印度와 接近

北大條約에 佛覺書發表

全蘇平和戰士大會

平和鬪爭案을 採擇

[illegible]

外貨導入統計

[illegible]

太湖서 農民暴動

國府激勵委員會組織

[illegible]

西獨選擧最終結果

[illegible]

西方諸國間에 合意

리비아獨立問題等

經濟界

輸入肥料代 淸算方式成案

[illegible]

美公金預託 朝銀으로 指定

[illegible]

週末時勢

[illegible]

去來停止

[illegible]

風向計

[illegible]

杓龍韓 內科醫院 서울市樂園洞161 醫學博士 韓龍杓

漢陽工科大學學生募集 一、選拔人員 二、應試資格 三、試驗場所及科目 四、試驗期日 五、提出할書類 六、[illegible] 七、[illegible] 서울市城東區新堂洞三五二番地 漢陽工科大學 電話東局(5)一七八三·二五七·七六番

政府樹立 三周年 紀念

◎原州◎

原州農業中學校 校長 羅己元 校監 鄭泰時

原州砂防管理所 所長 金泳根 主任 嚴東業

板富事業所 主任 嚴東業

文幕事業所 主任 洪起聲

江原道道立原州醫院 院長 李秀中

原州金融組合 專務理事 禹鍾大 外職員一同

原州專賣署 署長 尹慶求 外職員一同

江原道原州種畜場 場長 金鼎信 外職員一同

江原貨物自動車會社 原州營業所長 宋鶴漢 外職員一同

原州郡廳 外職員一同

江西燒酎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李㺩灝

原州果樹組合 理事長 [illegible]

原州郡農會 會長 朴[illegible] 外職員一同

◎洪川◎

瑞石面事務所 面長 元世基 副面長 崔鍾顯 外職員一同

上南森林保護區 主任 陳稲鳳 外職員一同

內外醫藥品 有名賣藥 洪川藥房 嚴世和

洪川公立初級中學校 校長 尹華圭 外職員一同

洪川面事務所 面長 万斗榮 副面長 朴明鎬 外職員一同

麒麟面事務所 面長 李璓龍 副面長 金榮吉 外職員一同

瑞石郡食糧配給所 所長 李建英

洪川金融組合縣里支所 理事 李興鳳 外職員一同

麒麟國有林保護組合聯合會

三井農林管理社 洪川事業所 所長 朴允三 外職員一同

濟衆醫院 醫師 崔在[illegible]

洪川專賣署 署長 尹[illegible] 外職員一同

瑞石專賣署 署長 張榮基

洪川酒造株式會社 [illegible]

成[illegible]醫院 [illegible]

[illegible]

分配完了한 歸屬農地 農改對象은 안된다

農林部農地局長談話發表

종래(■■)시대 여선■사(新韓公社)에서 관리하고있든 귀속농지 ■■기타 농장을경영하는 ■■■■ 또는광산기타 대사업장에서사업화장용지로서 유관리하고 있는 귀속농지는 농지개혁실시■■■■ 어떻게배정할것인가가 주목되고 있었는데 이에대하여 二十七일농림부농지국장은 다음과같이말하였다

귀속 농지는신한공사에서 관리하던 토지와기타 농장경영자 대공장광산등 각기관에서 관리하는농지의두종류로나누어져있는데 이중에서 신한공사가관리하던귀속농지 廿六만정보중 廿여만정보는 이미과정중앙토지 행정처에서분배하여 버렸으므로 앞으로 농지개혁이실시된때에도 재분배의 대상이되지 안는것이다 그러므로분원간 실시된농지개혁의분배대상은 신한공사소속농지중 미분배된농지전부와카타기관(■■을경영하는法人團體)는 ■山 大工場같은 企業體에서 ■■■■로 保有管理하는■

지전부(■■地)에서 완전히 분배하게될것이다 그리고 농지개혁법의 공포로 토지분배에관한 과정법령(過政法令) 백七十三호는 자연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또 이미 과정시대에분배된 농지라할지라도 농지개혁법에 저촉되는경우에는 무효가될것이다 그리고 과정시대에 합법적으로분배된농지의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을것이며 다만 상환액三十할과 상환기간十五년간으로되어있는것을 농지개혁법의 규정에따라서 十二할五부五년간상환으로 시정될것이다 그런데 이에대한 항간의풍설에의하면 과정시에 귀속농지를분배받은자가 작년에상환한 금액은 지가상환액중에 계상될것이나 또는 소작료로취급될것인가에대하여 의혹시하고있는모양이나 一단자기소유가된농지에대하여소작료를 지출한다는것은 법리상있을수없는일이다만 이문제는 경과 과정을 어떻게취급하느냐 에있는것인데 이에대하여는 마■ 농구에발포될시행세측으로 ■■연하게될것이다

市內뻐쓰運行 當分間八臺뿐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대망하든 뻐쓰二백六십二대를 내주일로 운행케한다고 약속한바있었는데 제반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앞으로二개월간은 가망이 없다한다 그러나 시운수과에서는 경기 강원 충청등 여객운수주식회사로부터 八대를충당하여 근일중 임시운행케하도록되었다한다 그리고 운행될 시간과지역및 구수는 다음과같고 요금은 매구간 二십원이라 한다

운행시간 自八時至一〇時 自十一時至十九時

中浪橋—麻浦 中浪橋—서울驛 四區間 三區間

任女史六回公判

전상공장관 임영신씨사건 제六회공판은 二十七일 오전十시반부터 대법정에서한격만(韓格晩) 재판장 주심정석복(■■■)검사 입회하에 개정되어 증증만(■■■) 변호사외三명의변론이있었다

南勞軍事責任者 鄭海永等을起訴

남로당 중앙군사 책임자 정해영(鄭海永=三四)및 무전(無電)기술자등 九명은 十六일 용산서로부터 송청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취조를 받아오던바 二십六일 국가보안법위반등으로 기소되었다

廿餘住民을殺害

長城에서暴徒들蠻行

경찰당국에 보고에의하면 지난二十五일 상오 四시경 장성군삼서면소룡리(小■里)에 돌연 무장폭도五十명이 침입하여 국민회총무과장 조병권(曺秉權)외 ■■ ■■■ 二十여명을 ■■ 곤봉등으로 참살하고 또한 그밖에 중상을입히는등 가진만행을 다하고 도주하였는데 이로인하여 민가二동이전소하였다한다(光州發고려)

建築許可事務 消防課에서도取扱

종래 서울시내에있어서의 건축허가사무취급은 일체 건설국에서만일관하여 취급하여왔었는데 방화시설을동한사한 건축물의증출에비추어 서울시장령제十五호로써 건축허가 게출서류(新築 增築 再築 移築 修繕)의처리는 소방과와 합의하여 취급하도록 개정되었다 ■■■■ ■■ 마하여도 ■■■■■■■ 이없이는 불가능하게되었다

쓰레기收集所

四十餘個所新設

시내의 쓰레기는 한동안 잘처가서 깨끗한 거리를 볼수있었는데 요사이와서 다시 시내 번화가의 한복판에 쓰레기가 산데미처럼 쌓이고있어 시민의비난과공격을사고있는 현재 쓰레기청소를 담당하고있는 시당국의 청소에요하는 예산을보면 한해에 약三억三천만원으로 년에 무려一억二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이 ■■ 二대중 四十대가 매일같이 움직이고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와같이 충분한 예산과시설을 갖고서도 쓰레기문제를 해결치 못하고있는것은 현재시내행 가관인 모청년단체의 사정으로인한 작업부진이라고 한다 이에 시에서는 二十七일 오후동청년단대표와 ■■■■■ ■■■ 하는 한편 시내에 무수의 쓰레기 집장소를 만들기로 되었다 즉 현재 시내에는 四백여개소의 쓰레기수집장이 있는데 개중에는 번화지대의 한복판인곳도 있어 이번 ■■■■ 로구와 중구는중심으로하야 四十여개의 쓰레기수집장소는 보관치 못한곳이 파이보기 흉하지않도록하기로되었는데 우선모범적으로 을지로(乙支路)四가에 벽돌로 쓰레기수집소를설치한다

秋期齒醫檢定試驗 十月十日부터實施

금번도 추기 치과의사검정 시험은 오는十월十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었는데 응시자는 十월三일까지 1、受驗願書 2、履歷書 3、身分證明書 4、戶籍抄本 5、資格證明書등을 제출하기 바란다고한다

韓美間에電送寫眞

對日小包郵便料金도決定

장(張) 체신장관은 二十七일기자단과의 정례회견에서 일본과의 소포우편물교환개시를 위시한 제반 사업발전에관하여 다음과같이발표하였다

▲對日小包取扱郵便料=재일동포 ■■■■ 일본과의 소포우편물교환은 九월一일부터 실시키로되었는데 요금은 다음과같다 一키로그람까지 一一〇圓 三키로그람까지 一五〇圓 五키로그람까지 一九〇圓 十키로그람까지 三七〇圓 또한 일반우표수급의편리를도모하기위하야 시내외를막론하고 현재우편함이있는곳은물론 그외에도 병영(兵營)등 구내병원 연차사당 정거장구내물품판매점에 우표판매소를九월十일내에 설치할계획이었다

▲서울對香港間電送寫眞取扱=지난十四일부터 二十일사이에 서울·샌프란시스코간의 전송사진을 시험한결과 성적이양호하여 二十一일부터 이의업무를 개시하고있는데 요금은 한장에 미화(美貨)로 五十불 한국돈으로 三만二천五백원이다

▲國民保險積立金融資의合理化=국민보험적립금은 종래 제반건설부면에 융자해왔는데 금후는이를 각도별 자업별의 적립금액 비례에의하여 결정하기로 되었다 따라서 지방적으로 국민보험에 직극협조하기를 요망한다

南勞情報關係者 拘留期間을延期

十八일 서울시경찰국으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등으로송청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취조를받고있는 신문기자등 二십五명에대하여는 구류기간만료일인 二十六일을 조사관계로그 기간을 다시十일간연기하기로되었다 한다

地方通信

韓靑鐵山郡團部 第一期訓練

【鐵山】한청예산군단부에서는 지난二십二일 군내각면단부와 읍내동단부로부터선출된 제一기훈련생 입소식을 거행하였는데 훈련기간은 一주일간이라하며 제二기훈련생입소식은 九월초순이있으리라는바 군내각세포단원들은 순번제로 전부가 훈련을받기로되었으며 최후에는 ■■전부의연합훈련도 ■■■■

虎部隊長 表彰情

【■■】작년이 ■■■■ 군이래 누차에걸쳐 ■■ 현남하여온 북한공산군을 격파하여 혁혁한전공을세운 호(虎)부대장 김종오(金鍾五)대령에대한군관민의 신뢰감은 날로두터워가고있거니와 금반제七사단사령부가 당시로옮겨온기회를타서 서병익(徐丙翕)군수는 군민을대표하여 二십五일 사단장이준식(李俊植)장군을방문하고 감사문을전달하는동시 군민전체의총의로 ■■

道立病院醫療隊 無醫村巡廻診療

【■州】충청북도 도립청주의원에서는 ■■■■ ■■ 이용하야 도내각지의 무의촌(無醫村)과 각지수의조합 공사장등의 순회진찰을 실시중인데 지난八월十一일부터 정주모범의원장 송춘화(宋春和)씨는 ■■■ ■■ 대동하고 영동(永同) 진천(鎭川) 괴산(槐山)등지에 수리조합공사장 노무자 五백여명에 대하야 무료진찰과 치료를실시하야 좋은성적을 얻었다 이에대하야 도립의원장 송춘화씨는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이번도내 전재민수용소와 각지 공사장의 노무자와 무의촌동에 순회진료한결과 이질인관계도있으나 대체로 一반의위생관념이 박약한것이었다 더욱이 공사장이나 주용소의 위생시설이 미고■■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 영양부족 ■■■ 환자도 많이 있었다 앞으로 보건사회와 협조하여 ■■■■■ 노력하겠다』

海軍展覽會

해군에서는 독립一주년을 기념하야 ■■■■ 다채로이 마지하고자 지난번인천에서 관람자의 한량이 있었거니와 오는二十九일부터 三十一일까지에는 미국문화연구소二층에서 해군본부정훈감실 보도과주최로 해군의발전을 전시하는 해군전람회를 개최하게되었다는데 일반의 많은참관을바란다 한다

陸軍通信校 六期生野外演習

【永登浦】영등포에있는 육군통신학교에서는 오는二十九일 동교부설통신과六기생의원거리 야외연습과 통신연습을 하리라는데 인근 지방민의 협력을 요망하고 있다 한편 ■■■ 九월一일은 동교창립一주년에 해당하는 날로 육상경기대회등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있으리라 한다

文教秘書室長釋放

문교부장관 비서실장 백四십문부정치분렬의로 지난八일서울고등검찰청에 구속되어 권오병(權五炳)검사의취조를 받아오던 문교부비서실장 이군혁(李君赫)씨와 외一명은 구류기간만료일인二십七일 석방되었는데 범죄협의가 없어진것은 아니고 동용치가 미군정하

파견정부로부터 대한민국정부로 이관되는때있어 복잡한관계가 있었던모양으로 이에대한 조사와아울러앞으로도 관계자들을 구속으로 계속조사하여 기소여부를결정할것이라고한다

漁業統合案尙今未解決

無能한水産政策을暴露

지난봄이래 상공부수산국에서는 뒤떠러진 한국원양(遠洋)어업의 진출을 도모하기위하야 과감한 국수산계에있어 일제의 아성이었던 임겸(林兼)상점과 그자매기관인 서대양(西大洋)어업주식회사 ■■■

원양(遠洋)어업주식회사는 민간법인단체인 조선원양어업주식회사와 흡수통합하므로써 강력한 국책회사로 발족케 한조치를 취하였든바 전기 임겸 서대양 양회사의 종업원들은 『한국의 원양어업발전시키기위하여 임겸급 서대양어업회사는 조선원양어업주식회사에통합한다는것은 전기 임겸 서대양어업회사는 본래 연해(沿海)어업의 복포로시설된 사업체이니관계로 원양어업과는 아무런 ■■■■ 통합을도모하여야한다』는 이유로 ■■■

여절처음 염려해서 근고 가끼고 작년에 한번 ■■■■ 어업조합이고 ■■■■■ 어업경영이 ■■■

江原戰況

【陸軍本部政訓監室報道課二十七日戰況發表第九號】

江原地區=지난八월六일부터 강원도 선양강(■■)상류로부터 인제군원대리에 불법침입한 북한괴뢰군은 지난八월二十일을 기하여 완전히 격퇴하고자 금도중하는 패퇴군을추격중에 있었는데 동전투에 있어 세포 ■용사에 지지않는 혁혁한 무훈을세운 용사가 二명이나있다 즉원대리전면에있는 六■고지에서적은 완강한 저항을 하고있는데 지난十六일 하오 六시경 ○사단 제○연대 육군二등중사이육봉(■■■)은 약一개분대 인솔하고동진지를 공격중에 있든바 이중사는돌연단신적진에 돌진잠복하며 적을향하여사격중 적군이중사를향하여 수류탄을 던졌으나 적이던진 수류탄을 불발된 적의 수류탄을 김어 적진지에던져 완전히 적을 물리치고 九사一생으로 무사히개선 하였다

그리고 동일제○연대육군一등병 유기칭(劉基成)용사는 동진지에서 적전에 단신적진에돌입하여 적병三명에게 포로가되어 소지했든 무기를빼앗기고 끌려가던중 불의에 습한적병은 군이 괴신하는틈을타서 몸에지적병을 사살한후 무사히 귀대하였다

二、湖南地區=八월二十三일오전四시四十분 공비무장폭도 약八十명이 경남 거창에 불법래습하여 적의 삼투수단인 약탈을 감행하며 전주창단 ■시내중요건물방화경찰관은 물론 시민 잔살등야적도 기억이 새로운 대한공비를 진속하고수색하는 시민을 진압하게 ■■■■ 도주한 공비는 추격하여 계속포로를 ■■■■■ 인데 전과는 다음과같다 敵射殺十二名 逃亡三名 捕虜二名 其他軍需品若干 我方被害無

勇敢한一勇士

單身敵陣에서奮鬪歸還

水産振興이時急

島民敎育熱은旺盛!

多島海學術調査隊歸還報告

조선산악회가 년래로계획하는 제六회사업인 다도해(多島海)학술조사대는 지난十일 목포(木浦)를 기점으로 大黑山島 紅島 (■■島) 下苔島 可居島 (小黑山島) 西巨次島 下■島 李子島 巨文島 莞島등의 서남해상의외파도 서울일주하고 귀로에진도(珍島) 벽파진(碧波津) 명랑도(■■■)우수영(右水營)등 충무공전적지를 방문하였다 답사의전과로 첫재 개관적인판정을내릴 ■■■

南勞情報關係者

徐議員等送廳

서남八일 종로서사찰계에구속되어 그간 엄중한 문초를받고있든 국회의원 서용길、신성균、배중혁、차경모(徐容吉、申性均、裵重赫、車庚模)四씨는구속기일만기로 二十七일 ■■ 건서류와함께 서울지방검찰청에송청되었는데 ■■■ 죄상은 ■■■■ ■■ 이관련되어있다한다

UN社會事業機構 빌·사라博士來韓

한국의 전이재민구제 실업자구제 세궁민구호등을 위시하여 고아원 양노원등 모든사회사업에 실태를 조사하기위하여 U·N 사회사업기구 극동주재 벌사라박사가 수행三명을대동하고 오는 오후一시 김포공항착으로 내한하였다 박사는 국무총리 이사회장관 구보건장관등에 환영을받고 비행장에 도착하였는데 앞으로의 박사의활동 여하가 기대되는바이다

白凡銅像 七十年生模型完成

치고 마침내는 흉변을 당하여서 거한 고백범김구(故白凡金九)선생의 동상을 세우기로되었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그간 동우전 위원회의 활동으로 동상의 모형이 완성되었다 동상건립지는 남산공원으로예정되었고 동상높이는 二십척 배경으로창은석조대(石造臺)는 四십척이라한다

民主日報續刊 九月一日부터

금년一월이래 휴간중에 있던동업『민주일보』는오는九월一일부터속간하리라는데 사무국측, 문화부면에있어 새로운 약반의, 재출발에있어 三두기로되어 그준비기간동안군당분간 부정기로매

文化

그의 作品과 思想(四)

—괴—테誕生二百周年에—

朴 徵 駿

괴—테自身이 親和力法則의作用의 緊張을忍耐에 드렀고 그의童고素合理的이고 悲劇的인 『무서운것』의 緊張가운 위험을 받은것은 엇전이고 스스로告白하였거니와 『詩와眞實』속에서 『무서운것』은 이『무서운生涯』에있어서 自身을救해준 『親和力』이라는 作品이 完成된一八〇九年은 그가 六十세였다 이人間이 自身의 生活을 靜觀하고 生涯의 統一이없이 自身의 作品에있어 整理하고 決斷하여온 生活을 渡觀하고 過去의 詩의 經驗을 回顧코저 自敍傳 『詩와眞實』을 計劃한 것은 一八一〇年이었다 이것은 自己自身의 個性의 放長 하고 ■■■■ 內容을 가진自白이다

그의生涯에서 『여기저서 내가 一生을 通하여 지니고있던 傾向이 시작되었다 나를 즐겁게하고 괴롭히고 또는 그밖에나의 마음을 動하게한것을 하나의 形象으로 하나의 詩로 바꾸어 그리하여그 것에 對한 自己의 態度에 結末을 지고 그것으로써 外界의 事物에 關한 나의 理解를 修正하고 同時에 내 內心에 安定을 갖게한다고 하는 그 傾向이 始作된것 이다 이런재조는 언제나 極端에서 極端을 탈 리는性情을 가진 나에게 는 다른 누구보다도 必要하였다 그래서 내손으로 써워진 모두는 하나의 커다란 告白의 斷片에지나지 않는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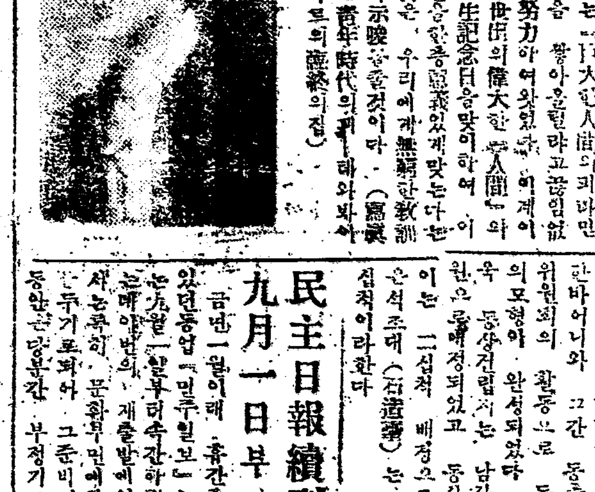
의 懸史로서 原題는 『나의生涯에서』로 되어있다는 『詩와眞實』을 完成하여 보겠다는 大膽한 試驗이 小著이다』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詩는 眞實』 속에서 그는 一八一一年 第一卷을 發表한 『詩와現實』은 그후 數年을 隔하여 차례로 續篇을 刊行하였으나 一八三一年 第四卷이 完成되며 이마르 이 오리까지에서고 치였다 『詩와 眞實』의 材料는 괴—테가 自己의 精神的 有機的發展에있어서 本質的인 意義있는 것만을 探擇하였다 괴—테에게 는우리들의 生活의 한 事實은 그것이 眞實임으로 價値가 있는것이 아니고 어떤意義가 있으로서 價値가 있다』는때문이다

生誕二百年째날

一헤—테

一七四九年八月二十八日 時計가 열두시를 치는것과 함께 나는 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誕生하였다 星座는 吉祥을 나타내고있었다 太陽은 處女宮에 서있어 그날의 最高所를 占有하고있었다 ゲ 쥬피타 ゲ 비나스 ゲ 太陽을 바라보고… 『詩와眞實』—괴—테의 一生이 이 詩華를 作한지 二百週年이다 不滅의 詩人으로 卓越한 政治家로 自

然科學者로 그리고 그의 生命을 通하여 『사랑』을하여 온 괴—테의 情熱과 業績은 獨逸文化는 勿論 近代世界文化史上의 巨大한 자최를 남긴것이다 그의 生涯를 決定的으로 빚나게한 『봐이마르』에는시금도 이市의 南方 괴—테廣場에 面하여 괴—테의 一生을 마친 『괴—테』의 臨終의 집이 있어서 『괴—테』가 의 집과 함께 『쉴레르』街의 『쉴레르』의집과 함께 獨逸의 貴重한 遺物로서 남아있다



一八三二年 三月二十二日 아나에게 빛을더 좀— 하면서 一生을 마출때까지 그는 『巨大한 人間』이라고 밖에는 말할수없는 不世出의 偉大한 『人間』이 努力하여 왔었다 우리들이 이에 誕生記念日을 맞이하여 이 그의 一生이 우리에게 無限한 敎訓을 남기고 示唆할것이다 (寫眞은 靑年時代의 괴—테와 봐이마르의 臨終의 집)

長篇小說 群像 (69)

朴 泰 遠 作

金 奎 澤 畵

第三章(十四)

용인읍내 주막거리에서 눈피나리 보스짐을 전머지고 재작리한 나그네가、저의 아들이라며、매죽 맏으고 키큰 엽네살 먹은 종각아이의 거취는 알아보느라 골몰인데、정작종각이 내석은 그런것은 꿈에도 모르고、다시 서울을 바라고 길을 떠나、이때는 이미 너머더 가까히 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동행이 있었다。동행도 색다른 동행——、좌우에 솜뭉치 달린 꽤랭이 쓰고 손에 물미장 집고、보자 예다 무엇인지 한짐 잔뜩 써서 짊어지고、발감개도 거뜬하게 한、나이 삼십전후의 장돌뱅이다。

『하여튼 네가 당돌은 허다。』

나란히 서서 부지런히 걸으며 장돌뱅이가 하는 소리다。

『뭬、당돌허단말이유』

종각이 너석은 역시 약간 볼멘소리로 한마디 되묻는다。

『이런 제—기……

냥。』

『참、그렇지。그래 너 아버지 기신데가 어디 지、알었수。』

『이라구 간밤에두 말허던 기별받구 가는 길이 거냐。』

『아버지가 병이 중허시 운엔뭐라하러 올라가는 거、아니냐……그래、서 룰리게 내가 그렇게안 있다구 그러는거유。

『곧내지 마라。말이 와주 있지않수。뭘 속 와서 살면、그렇게、만 큼청두 보은오무 떠나 는 전라두태생이래두 까。』

『잔은 아우……、본래 필루 알았수。』

『말은 들어보면 모르 누가 아닌。』

『내가 고향 속이는건 몰두 정말 이름인지 보은이라구 속이나、이 담이며 고향이 충청두 꾸며대게。』

『정녕 네가 전라두사 아니갯지。』

『내가 바쳤수、이름은 계다 꾸며대는 이름은

『……』

『피천 한닢 몸에 지니지않고 수백리 서울 길을 혼자서 나섰으니 말이지。』

『그래 그동안 줄곧 파처잘만 허며 왔겠구 나。』

『들어오는데 뭐였소。』

『안재워주면 다 어거지루 떼쓰구……、어딜가든 굶어 죽진않게 생겨 먹었다。』

『이건 누굴 써까슬르는 모양이유。』

『내가 어째 나서서 뜯어 말리지 않았드면 어떠할 작정이었느냐。정말 그 주막쥔허구 사생결단을 헐 생각이었어。』

『쌈 말리구、나 밥사 줘서 구공치사 좀 그만 허우。』

『하、하、하……치사스럽게 공치사는 내가 무슨 공치사냐。그런데 참 이름이나 알자。』

『당신버텀 먼저 말허우。』

『하、하、하……그래라 난 권서방이다。』

『난 신도편이유。』

『성은 신가구……이름은 뭐냐。』

『당신 이름은 뭐유。』

『한마디두 지려군、않는구나。내 이름은 수만이다。』

『그럼、권수만이구료。』

『내 이름은 돌석이유。』

『……신돌석이……、아무렴。』

『서울이 다 뭐야。』

『서울은 알지만 어느 동네냐 말이야。』

『동네 이름까지 대야 돼。바루 용인원님 문초허듯 허네。』

『문초랄께 뭐 있느냐。그냥 물어보는게지。』

『서울 남대문안이랍며다。』

『남대문안……、남대문 안만 알어가지구야 찾는 도리 있나。』

『걱정두 타구난 팔짜유。』

『남대문안이라니、호옥 양살골이나 아닌가。』

『양살골……、그래 참 양살골이유。』

『하、하、하……이녀석아 거짓말 말아。양살골이 남대문안이야。새문안이지。』

물석이가 역시 얼굴을 약간붉히면서도、

『그래 참 내가 잘못 말했어。새문안 양살골 이라드군。』

가장 천연스럽게 말하는데、권서방은 숫제 결음 멈추고 서서 깔깔 웃으며、

『이녀석이 아무렇게나 꾸며대기는 잘허네……양살골이 동대문안인데 새문안이 뭐냐。너、너 아버지 찾어간다는게 그게 다 거짓말이지。』

하고、물석이의 얼굴을 빤히들여다본다。

中等 檢定畢 敎科書·敎材

서울市 敎育會 會長·國會 新敎育法審議委員 ※數學·數學科 檢定委員·서울中央校長 沈亨弼 先生著

中等 새수학

第一學年用 ★200원 內容檢定畢 內容充實·價格低廉 ★는檢定價

第二學年用 ★220원 特徵: 1.數學大家가 二十五年의 敎育經驗과 敎育理念을 土台로 한名著

第三學年用 ★220원 2.純粹한『朝鮮의 數學敎科書』인것

高級數學은 新學制制定에따라 반드시完全하고 權威있는것을 發行할 準備中이다

敎師用參考書 本敎科書를 採用하시는 先生用으로 仔細하고도 充實한 敎師用參考書를 無料提供할用意가되어있다

一般科學科

식물계 朴萬奎 李永魯著 210원

동물계 崔基哲 洪元植著 ★200원

인류계 朴萬奎 醫學博士姜得薰著 ★200원

(完全檢定畢) 生物系의決定版 建國社의生物系敎科書는天下가共認하는決定的敎科書이다 現品을比較檢討해보시요

漢文科

中等漢文敎科書 1	★60원	趙楨著	
中等漢文敎科書 2	★60원	趙楨著	
中等漢文敎科書 3	★60원	趙楨著	▲內容은現實的
中等漢文敎科書 4	★80원	趙楨著	▲價格은最低廉
中等漢文敎科書 5	★80원	趙楨著	▲普及은最多數
中等漢文科 6	★80원	趙楨著	

其他敎材

작물통론	白大鉉著	160원
獨逸傑作集	서울文理大獨文學會編	100원
식물이름찾기	師大敎授崔基哲著	300원
英■■典		300원
생물술어집 普及		50원

★地方에서 上京하는분들 ■■■■ 電話(2)3■■■ ■■■

서울苑南洞23 振替서울36433 電話(5)1757 建■社

音樂高等學院 學生募集

一、本科師範科(各科) 國民學校音樂敎師養成 中等學校音樂敎師養成
一、人員 一年生晝夜各科男女五〇名 二年生若干名
一、資格 初級中學卒業程度 專修科는資格不問
一、願書磨勘 九月十日
一、試驗日及課目 九月十一日(日) 國語、英語 樂典、音聽、口頭
一、詳細來問 (要用紙代百圓)
서울市中區仁峴洞二街三二 電(2)八五七四

夜間男女年齡不問
高麗中學生徒募集
一、募集人員 第一學年 晝夜 各五〇名 各學年 〃 若干名
一、願書磨勘 九月五日(月)까지
서울市中區太平路三街 (首都劇場前) 電話本局(2)〇六三七番

賣渡
乙型發動機(三馬力)讓渡함
忠武路三街三六(四街入口) 復興商會

脫黨聲明書
■■■■■■■ 安學基

탈퇴성명서
금번一월에 ■■■■■■ ■■■■ 김동순

活命水

急募 特別優待함 앰플技術者數名
京城齒藥社앰플工場 電光一八六九 三三九九

英彰中學校 同窓會員에게 告함
母校의 重大緊急討議事項이有하오니 無漏參席하심을仰告함
時日 四二八二年八月二十八日(日) 上午十時
場所 城東區新校舍(前三女中跡)
同窓會長 趙弼顯 白

學生帽子製造販賣中
團體注文 廉價로歡迎
在庫豐富
京城製帽店
서울市中區南大門路四街三 電話(2)二六二一·一八三三

藝 强力殺虫藥 計—랑根
直輸入販賣中
★都賣價格 每斤當(六〇〇圓)
★小賣價格 每斤當(六〇〇圓)
서울市中區仁峴洞一街二三
南方貿易公司
서울直賣所 救世藥局 京城化學藥品商會 八九藥房 三榮藥品商會 共和藥局 亞細亞藥局 西大門藥局

技術·迅速·信用本位
煖房裝置 蒸氣機關 水利水道 一般鐵柱 工事請負
株式會社 鮮榮工務所
서울市中區南大門路 電話本局(2)八四二七

책상마다 善 친선잉크
CHINSHIN INK
서울市城東區新設洞139 친선잉크工業所

完全能率 貸切 甘泉 ■■■■
金龍旅館